

#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부산항축제' 개최

미니 엑스포 글로벌 포트 파크  
폰툰보트 수상 공연·보트투어  
1000대 규모 드론쇼 선봬

국내 대표적 항만축제인 '제16회 부산항축제'가 오는 27일, 28일 양일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북항 친수공원, 영도 아미르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가 함께 개최하는 올해 부산항 축제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먼저 부산항 물류의 상징인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간에서 여러 국가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글로벌 포트 파크(Global Port-Park)'가 준비됐다. 또 북항 친수공원 수로를 따라 폰툰보트(노를 젓거나 모터에 의하여 추진하는 서양식의 작은 배)



부산항대교를 배경으로 '제14회 부산항축제'의 개막축하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스시스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 수상 공연 '씨스루(Sea-Thru) 콘서트'도 열린다.

이와 함께 오리·문·도넛보트를 체험할 수 있는 '보트투어'와 1000대의 대규모로 구성된 '드론 라이트쇼 & 불꽃쇼' 프로그램도 처음 선보인다.

특히 '글로벌 포트 파크'는 독일의 맥주축제 현장을 그대로 가져온 '독일 맥주관', 인도 전통 하타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인도관', 중국 고유의 식문화와 만날 수 있는 '중국관', 베트남 전통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베트남관' 등

으로 구성돼, 눈과 입이 즐거운 미니 엑스포를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막식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사전 박람회(Pre-EXPO)'를 주제로, 27일 오후 2시에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다. 주제관인 '부산 포트관' 개봉 행사와 함께 '글로벌 포트파크' 행사장을 순람하는 탐방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포트관'에서는 미디어 전시인 '타임라인 슬라이드'를 통해 1876년 개항부터 2030년까지 부산항의 변천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한국이공적개발원조(ODA)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부산항에서, 부산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국제구호단체 '코인트리'와 연계해 스리랑카 학교로 전달하는 기부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지역 이모저모

대전시

### '대전은 노담 도시' 캠페인

대전시는 제36회 세계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시민들의 흡연 예방 문화 조성 및 금연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 기간 '대전은 노담(NO 담배)도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3일부터 금연 독려 가두행진과 담배꽂초를 찢는 금연 플로깅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펼친다.

또, 각 보건소는 금연클리닉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한다. 사회관계서비스망(SNS)과 전광판 등에 금연 카드 뉴스와 포스터 등도 게재한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영주시

### 27일부터 '소백산 철쭉제'

'2023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경북 영주시 소백산 및 서천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22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철쭉제는 '知(지)·好(호)·樂(락) - 알리고·느끼고·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영주 고유의 문화를 느끼고, 축제를 즐기고,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축제 기간 중 소백산 정상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클래식 피아노 공연 '비바, 클래식 with 영주 소백산'이 선보인다. '철쭉! 땀으로 스며들다!(클라이밍 & 어드벤처 체험)', '철쭉의 낭만! 열기구&문보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영주(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순천시

### 순천만습지서 '무진호' 운항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20일부터 순천만습지에서 소형 생태체험선 '무진호'를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진호'는 스카이뷰(국가정원-순천만)를 타고 순천만역에서 내린 탐방객들이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동천 하구 내륙습지를 탐방하며 순천만습지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동선을 제공한다.

코스는 순천만역 선착장(문학관)에서 순천만습지 무진교(약1.2km)까지 편도로 운항하며 약 15분이 소요된다. 탑승요금은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유아 1,000원이며, 문학관 선착장에서 현장 발권하여 탑승할 수 있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강진군

### '먹개비' 누적 결제액 3억 돌파

전남 강진군은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누적 결제 금액이 3억 원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공공배달앱 먹개비는 민간 배달앱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6.8~15%) 대비 국내 최저 주문 중개수수료(1.5%)로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료가 없는 전라남도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먹개비는 입소문을 타고 알뜰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용률이 증가하며, 5월 기준 누적 주문수는 1만2324건으로 결제금액은 3억 원을 돌파했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 인도·스리랑카·말레이서 경북형 지방외교 펼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3국 방문  
외국인력 유치·K-관광 홍보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는 21일부터 30일까지 14억3천만 명의 세계 인구 1위국인 인도를 시작으로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경북형 지방외교를 펼친다.

먼저 이 지사는 인도 28개 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타르 프라데시(UP)주의 요기 주지사와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델리대, 네루대, 수바르티등 3개 대학을 찾아 특강과 함께 유학생 및 우수인력 유치 설명회도 벌인다. 평소 이 지사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학과 산업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주장해 왔다.

또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문화교류위원회(ICCR)와 함께 경북-인도 합동공연을 갖는다.

경제위기인 스리랑카의 성장 해법으로 이 지사는 국무총리 및 국회의장



과 회담, 고위공무원 대상 특강을 통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라고 피력해온 평소 철학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스리랑카 시골의 작은 마을이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변화하는 현장인 왓폴라 새마을 시범마을도 방문한다. 현재 경북도는 스리랑카를 비롯한 8개 국가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와 코타키나발루를 찾아 경북형 K-관광과 K-푸드 열풍을 일으킬 계획이다.

사바주 하지지 주지사 초청으로 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해 관광은 물론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와 인력을 보유한 사바주와 투자 및 계절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장영우 기자 ycw57@

## 울산시, 기술 강소기업 중점 유치

직원 복지 향상·지역 경제 활성화

울산시는 22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술 강소기업 유치 및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안호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세원테크, 대국정공, 두손화학, 스펀스 엔텍, 에이엠트리, 웨이브트리, 이수파트너스, 케이엠씨피, 코넷, 큐파이어, 피아이테크, 해성 등 올해 울산으로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기술강소기업 거점(허브)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체결된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기업은 4차 산업 혁명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울산시민을 최우선 고용한다. 또 직원 근로 환경 시설 개선 투자와 보조금 집행 시 울산 시

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도 협약 기업이 울산에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 자금은 제출된 연구 과제를 평가해 최소 6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업무 협약 체결 후에는 기술 강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주재로 기술 강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꾸준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 지역 주력 산업, 미래 신산업, 저탄소 녹색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술 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 여수시, 프랑스 1만 톤 급 크루즈 입항

343명 태운 '르 소레알' 크루즈

전라남도 여수시는 프랑스 포난의 1만 900톤 급 르 소레알(Le Soleal) 크루즈가 프랑스, 미국, 호주 등 18개국으로 구성된 승객과 승무원 343명을 태우고 지난 21일 여수엑스포터미널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르 소레알(Le Soleal) 크루즈 승객들은 순천 낙안읍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순신광장 등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3개 관광코스를 둘러본 후 이날 오후 일본 후쿠오카로 출항했다.

이번 크루즈 입항은 지난 4월 미국 실버시의 실버 위스퍼호 이후 올해 두 번째로 전남도와 여수시가 지난해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 세계



크루즈 입항 환영. /전남도

적 크루즈 선사인 포난과의 기항지 설명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 오는 10월에 실버 위스퍼호가 한 차례 더 입항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미국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여해 기항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난과 실버시의 2025년 기항이 기대된다. /여수(전남)=양수영 기자

## 전남 농수산물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늘어

태국선 2번째, 전 세계 22번째

전남 농수산물식품 해외 수출 확대를 견인할 현지 전진기지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 우수 농수산물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인 농수산물식품 상설판매장을 지난 18일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상설판매장은 태국에선 두 번째이고, 전 세계에서 아홉 개 국가 스물두 번째다.

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음식에 대한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의 동남아 시장 개척 발판

이 될 전망이다. 판매장엔 완도 전복과 김 등 해조류, 강진 딸기, 영광 굴비, 담양 한과, 고흥 나물 등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산물식품 34개 제품이 입점해 판매된다.

2020년 방콕 지두방 파라다이스점에 전남 상설판매장을 개설한 후 한국인은 물론 현지 관광객이 많은 치앙마이에 추가로 상설판매장을 개설했다.

전남도는 태국을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에 총 9개 상설판매장을 추가로 개설해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의 안정적 수출 판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